● 이제 돌아가야 할 때다

-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.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 것인가, 아니면 사회의 규칙에 따라 살 것인가? 부처의 절묘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. 그가 진정으로 하려는 말은 우리 자신의 본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.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어서 뛰쳐나가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어서 돌아오라고 재촉했다.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며 철저한 회의주의자가 되라고 하면서,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독실한 신도가 되라고 한 것이다. 회의주의자와 신도 사이에서 나는 늘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. "이제 돌아가야 할 때다."

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.
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 것인가,
아니면 사회의 규칙에 따라 살 것인가?